

정보통신기기부문, 생산 및 수출의 호조

이태용 KJET 전자정보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997년도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은 세계 PC수요의 회복에 따른 PC 및 주변기기의 수출증대와 국내 이동통신 수요의 확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먼저 컴퓨터산업의 경우 수출은 미국과 EU 등 세계 주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시장의 수요회복과 국내 생산기술향상에 따른 고급 주변기기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비 25.5%의 증가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컴퓨터 부문 수출에서 주목되는 것은 컴퓨터 본체의 수출로서 지난 198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중저부를 찍고 수출증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특히 노트북 PC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PC본체 수출은 전년대비 약 43%의 증가가 추정된다.

한편 주변기기의 경우 대용량 HDD, 프린터, FDD 등 고급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24%의 수출증가가 추정된다.

수출지역별로는 미국, EU, 일본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국, 캐나다 등지로의 수출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중국 등 후발국의 자체생산기반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판은 노트북PC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증가, 인터넷의 보급 증대로 인한 서버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비 7.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수출과 시판의 증가에 따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생산은 전년대비 19.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수입은 국내 수요증가세의 둔화와 PC 및 주변기기의 국내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수입대체로 전년 대비 8.5%의 감소가 추정된다.

한편 통신기기 부문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휴대폰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금년 하반기에 PCS 서비스가 시작되어 관련장비 및 단말기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기기 부문 역시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수출은 1996년 하반기부터 활기를 띠어온 무선전화기의 수출호조가 지속되어 전년대비 16.8% 증가한 27억 600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시판)는 1996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이동통신사업자간 치열한 시장확보경쟁에 따른 관련 장비 및 단말기의 대규모 수요창출로 전년대비 73.3%의 매우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품목별로는 특히 무선전화기가 전년대비 약 2배가 넘는 높은 생산증가율이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수요의 확대와 함께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은 CDMA 이동전화사업 등의 설비투자가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수입증가율은 지난해 보다 둔화된 전년비 10.5%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수출과 시판의 증가에 따라 생산은 전년비 46.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기기산업 수급 현황 (1997년 추정치)

(단위 : 생산·내수 : 억원, 수출입 : 백만달러, %)

	생 산	수 입	수 출	시 판
컴퓨터·주변기기	78,586 (19.5)	3,613 (-8.5)	6,448 (25.5)	22,730 (7.0)
통신기기	62,057 (46.5)	2,505 (10.5)	2,706 (16.8)	34,920 (73.3)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및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근거로 작성

주 :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2) 시판은 내수용 수입을 제외한 국내 제조업체의 출하만을 계상.